社 說

포천시 각종 규제완화 추진

포천시는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겪고있는 사례를 발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규제피해 중점발굴 대상은 포천신도시 건설이나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계획이 있는 산정호수 주변지역 등이다. 또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완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나 위임입법 분야, 군사시설과 관련한 피해사례 등이 중점발굴 대상이다.

이와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포천시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는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법령이나 규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결하는데는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포천지역은 각종 규제 법령으로 묶여져 있다. 또한 최근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행위제한 지역이 많다.

더욱이 시민들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각종 행위제한을 가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사소한 규제는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포천시민들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포천시가 규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근 시군과 포천지역은 동일한 수도권 지역이면서 동일한 법령이 적용된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포천시가 인허가 사항을 다른 지역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민원처리 또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본다. 시민들이 이같이 느끼는 것은 포천공직사회가 되새겨 봐야 할 일이다. 아울러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 이런 사례를 조사하고 백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뭔지 확인해야 한다.

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행위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무분별한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규제를 완화하는데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규제완화는 개인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민전체의 입장에서 수혜자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수긍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재산권이 일부 침해받았다고 해서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특히 포천시 관련부서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관련 위임입법이나 자치법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 훈 :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편 집 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 A X (031)541-9117
발 행 인 최 호 열
편 집 국 장 김 영 복
인 쇄 인 김 규 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2008 새해설계 ④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자

여성계와 소외계층 대변위해 노력하는 의원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의원은 발벗고 나서야"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최초 여성비례대표로 선출된 김영자(67·사진)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여성계와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의원은"여성의원이라는 한계가 벽에 부딪치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 운영에 있어 운영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지지보다는 소외감을 더 느껴야 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면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할 때는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

김 의원은 무섭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너무 안이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한 콩을 팥이라 말할 때는 기운이 빠진다. 포천시의 경우 각 실과소의 행사가 너무 많다. 살림을 알뜰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여성의원으로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인정을 안한다는데 있다고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위원장으로서 서운한 감이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시설은 많은데 장애인은 춥고 배고픈 것이 포천시의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탐탯갑을 본인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시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집행부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지 말고 포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공무원,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포천시를 사랑하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에게 바라는 사항에 대해 김 의원은 "의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잘 단합이 되어 포천사회발전에 공도 세우고 이바지하는 의원상을 정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에게는"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는 시민들이 있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다시 찾아서 근무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일한만큼의 댓가를 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수치를 낮춰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존경한다"며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잘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보도할 수 있는 멋진 신문으로 거듭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中央정부 인프라 활용 지역發展 초석"

포천소방서 신속한 구조활동 위해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에서는 25일, 26일 양일간 깊이울저수지에서 해빙기를 맞아 얼음판 사고등 수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수난사고 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겨울철 익수자 구조법과 잠수장비 사용법, 잠수 및 비상시 행동요령, 복식 사다리를 이용한 구조방법 등 유형별 실전 위주로 훈련을 펼쳐 유사시 신속 대응토록 했다.

포천시에는 한탄강등 크고 작은 강,하천,저수지등이 50여개가 있어 해빙기 얼음판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포천소방서 김인섭 구조대장은 "해빙기에 들어서는 겨울내 얼어있던 얼음이 녹기 시작하여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깨질수가 있어 무리한 빙상놀이 및 낚시행위등을 금지하는등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소방서에서는 25일, 26일 양일간 깊이울저수지에서 해빙기를 맞아 얼음판 사고등 수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수난사고 적응훈련을 실시했다.

"기초질서 · 공권력 침해행위 강력 대처"

포천경찰서, 법질서 확립 위한 무궁화 포럼 개최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2월 21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무궁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무궁화포럼은 ▶어청수 경찰청장 취임 동영상 시청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서장 훈시 ▶각 기능별 당면현안사항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귀찬 서장은 훈시를 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며, 기초·교통질서 위반, 불법폭력 시위 등 생활무질서 추방 및 공권력 침해행위에 강력대처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무궁화포럼에 앞서 경찰서 포도왕 선발을 통해 강력팀 박용운 경사, 소흘지구대 김경순 경사에게 표창 및 부상(금반지)을 수여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경찰서는 2월21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무궁화포럼을 개최했다.

노고산성 정월대보름 축제 성료

포천시민 5000여명이 참석해 소원성취 기원

'제7회 노고산성 정월대보름 축제'가 20일부터 21일까지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에서 시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노고산성정월대보름축제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소흘읍이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축제는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고모리로 떠나는 문화여행'을 주제로 펼쳐졌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달집태우기, 장승제, 널뛰기, 투호놀이, 쥐불놀이 등의 참여행사와 장승깎기, 떡메치기, 장단배우기 등의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져 가족단위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오전 10시 길놀이와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가요 한마당, 한국경기소리보존회, 한동엽 무동단의 공연과 솟대와 장승제 고사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이번 대보름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달집태우기는 달집 점화, 풍물놀이 및 강강술래, 달빛 마시기 등 축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염원을 기원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제7회 노고산성 정월대보름 축제'가 20일부터 21일까지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에서 시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포천경찰서, 노인대상 교통안전 순회교육실시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1월1일부터 2월27일까지 2개월간 포천시 전 읍면동을 방문해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교통관리계장, 외근반장이 출강해 무단횡단 안하기, 야간 보행방법, 최근 교통사고 사례 등을 교육하며 자체 제작한 홍보물(등산지팡이)를 나눠주며 노인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가 제로화 되는 그날까지 포천경찰서는 맞춤형 교통안전순회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